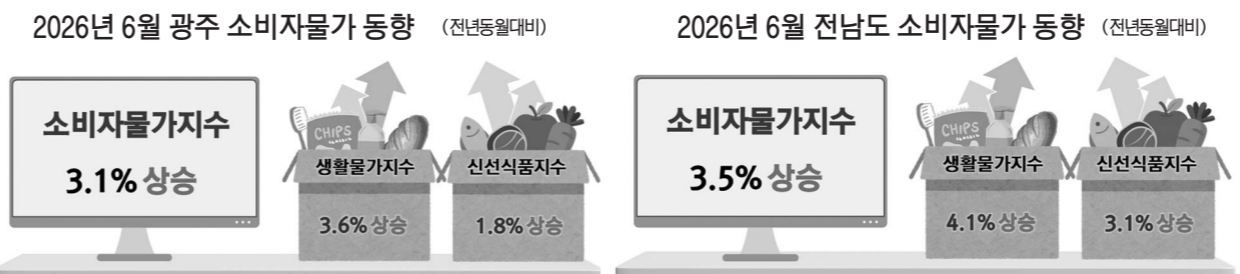


# 고유가·고환율에 지역 물가 두달 연속 3%대 경총

## 광주 3.1%·전남 3.5% 중동전쟁 영향 등 지속 먹거리가격도 오름세 전국 30개월만에 최대폭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 넘게 오르며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을 끌어올리며 물가 상승세를 키웠다. 2일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18(2020년=100)로 전년동월비 3.1% 상승했다. 이는 2년만에 3%대를 기록한 전월 상승률(3.1%)과 같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 식품과 식품 이외 품목이 각각 2.3%, 4.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도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각각 7.6%, 3.1% 상승했지만 신선채소(-6.2%)의 가격은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국산쇠고기(-4.7%), 오이(-35.8%), 마늘(-12.2%) 등이 떨어졌지만 사과(14.2%), 쌀(12.7%), 고등어(13.8%)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공업제품은 휘발유(23.5%), 경유(34.3%), 컴퓨터(22.2%) 등이 크게 뛰면서 4.6% 상승했다. 반면 생리대(-10.3%), 키친타월(-9.6%), 세탁제(-5.3%)의 가격이 떨어졌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다. 국제화공로(28.3%)와 해외단체여행비

(24.3%) 등이 크게 올랐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1.35로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두달 연속으로 3% 상승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4.1% 상승했다. 식품은 2.6%, 식품 이외 품목은 5.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갔다. 신선어개가 1.9% 상승하고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은 3.6%씩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4.1% 상승했다. 국산쇠고기(8.9%)와 사과(14.9%), 쌀(12.0%)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계(-9.2%), 마늘(-7.6%), 새우(-6.9%)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5.3% 상승했다. 휘발유

(23.6%), 경유(34.9%), 등유(24.1%)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국제항공료(28.2%), 보험서비스료(13.4%) 등이 오르면서 2.3% 상승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3.2% 올랐다. 2023년 12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확대되더니 5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다. 석유류 가격은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p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신협 광주전남본부, '무더위 쉼터' 운영

광주·전남 64개 신협...내달까지 생수·부채 등 지원

신협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제공을 통한 신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와 별도로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광주·전남지역 87개 신협 가운데 64개 조합이 참여해 다음달 31일까지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본부는 최근 광주중부신협을 방문해 캠페인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쉼터 운영 준



비 상향을 점검했다. 참여 조합에는 생수와 리유저블백, 왕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이 지원되며, 주민들은 영업점 내 마련된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항만공사 통합추진' 여수광양항만공사 위축 우려

고유 특성·사업 영역 무시...해운물류 주권 후퇴 박성현 시장·노조 "핵심 기능 퇴색·경쟁력 저하"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양지역에서도 항만 특성과 사업영역 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통합항만공사 본사는 부산항이 되는 것은 물론 여수광양항은 지사나 사업소 등으로 전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개 항만공사의 통합추진은 지난 4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기능 개편안'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항만공사의 인사·회계·자산관리 등을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을 없애고 국가 차원의 일

원화된 항만물류 전략 수립이 필요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4개 공사별로 분산된 인사, 재무, 기획 조직을 일원화해 운영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전국 4개 항만공사의 설립 목적과 담당 기능이 서로 달라 일괄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노조는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무역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위협 소지가 큰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은 '탁상공론형' 정책이며 통합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해운물류 주권

이 후퇴하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의 글로벌 물류허브항.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및 크루즈, 물류의 관문. 울산항은 석유화학 및 에너지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원자재 중심의 '국가 기간산업 지원기지'로 자리매김 해오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재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4개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본사가 부산으로 가게 돼 여수광양항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항만도 발전하지 못한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병호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장은 "4개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항만 고유제의 기능 역할을 하게 될지 의문"이라며 "각 항만의 역할이 있는데 비용 측면의 효율성만을 바라보고 통합하면 경쟁력만 저하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달 22일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대한 입

장문을 발표하고 "광양항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총 수출입 물동량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불멸의 제1수출입 관문항이다"며 "국가 기간산업의 최전선에서 수출입 관문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광양항만공사 통합이 강행된다면 핵심적 기능이 퇴색하고 수출 전선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국 항만공사 통합논의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는 무책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가까운 일본은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조합(나고야항)을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지방 분권시대에 항만의 특성과 경쟁력보다 효율성만을 앞세우며 항만이용기업, 현장 노동자, 지역사회 등의 없이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는 연간 3억여에 가까운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의 위상을 유지해 오고 있는 여수광양항이 공사통합으로 화물만을 처리하는 단순 사업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jin@

## 임동 '챔피언스시티' 9월 첫 분양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개발...1차 3216가구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 '챔피언스시티'가 첫 주거 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국내 디벨로퍼인 신영과 우미건설, 휴먼스튜디오 등이 참여한 챔피언스시티개발(FV)은 오는 9월 '챔피언스시티 1차'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챔피언스시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옛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만8000㎡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광주 최초의 디벨로퍼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분양되는 '챔피언스시티 1차'는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4㎡, 총 32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의 약 79%인 2534가구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공급된다. 사업지는 광주 도심의 핵심 입지로 꼽히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선다. 서광주IC와 무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광주역,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문화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특히 챔피언스시티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복합공간으로 계획한 디벨로퍼

형 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중심에는 백화점과 특급호텔, 문화공원, 업무시설 등을 보형 동선으로 연결한 '어반 코어(Urban Core)'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과 소비, 문화 활동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심형 복합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전방·일신방직 산업유산을 활용해 조성되는 문화공원과 직접 연결된다. 또 광주 최초의 실내 식물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더현대 서울'의 약 1.5배 규모로 추진되는 '더현대 광주'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췄다. 단지 설계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마인드브릭 디자인랩이 참여했다. 공간과 환경이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신경건축학 개념을 적용해 입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거 설계도 다양성을 강화했다. 광복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3면 개방형 거실·식당·주방 특화 평면 등 총 24가지 평면을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외관은 최고 49층 규모의 초고층 실계를 적용해 새로운 도심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챔피언스시티 견본주택은 사업부지 내에 마련되며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5.32p(7.89%) 내린 7648.09에, 코스닥은 62.63p(6.74%) 내린 866.72에 장을 마감했다. 한민

## 광주 집값 낙폭 줄었지만 전국 최대 하락

전남 5주째 상승세...목포·나주가 견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둔화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전남은 매매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가 지방 8개 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차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6% 하락했다. 최근 5주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0%, -0.11%, -0.09%, -0.09%, -0.06% 등 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대규모 반도체 투자 기대감이 시장 심리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이 광주권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착공에 나설 경우 일자리 증가와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주택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9% 상승하고 지방이 포함(0.00%)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는 하락폭이 가장 컸다. 자치구별로 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광산구(-0.07%) 산월·소

촌동, 북구(-0.07%) 운암·연제동, 동구(-0.07%) 산수·소태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남구도 -0.04% 기록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4주차 0.01% 하락에서 6월 1주차 0.06%로 상승 전환 후 0.07%, 0.07%, 0.06%, 0.06%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목포시(0.31%)는 육암·상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주시(0.24%)는 빛가람동과 남평읍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무안군도 0.11% 상승했고, 순천시는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전환했다. 전남은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지방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코스피 8000선 붕괴

삼전 9%·SK하이닉스 14% ↓ 2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8% 가까이 떨어져 8000선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0.31p(4.46%) 하락한 7933.10으로 출발해 655.32p(7.89%) 내린 7648.09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1일(7763.95)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이후 낙폭을 줄여 8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시 장 후 반 하락폭을 확대, 한때 7616.33까지 밀렸다. 급락장에 이날 오전 한때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가 발생했다. 오후 들어 30번째 코스피 사이드가 발동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4044억원, 2조81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린 반면, 개인은 6조2656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지난 19일 이후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9.06% 내린 28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록한 전고점(37만4500원) 대비 23.6% 낮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4.57% 내린 218만7000원이다. 이는 전고점(6월 25일, 298만7000원) 대비 26.8% 밀린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1월 20일(-14.91%) 이후 17년여 만에 최대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